“음악서 채우지 못한 삶, 불교로 충족”

에드워드 사이몬, 잡지 인터뷰서 불교인연 밝혀

박정현 객원기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에드워드 사이몬(Edward Simon · 49)의 음악활동에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불교’다. 그는 음악으로 충족되지 않는 삶의 가치를 불교에서 찾았다고 말한다. 또 불자들에게 과거의 한 좋은 경험에 집착할수록 결국 현재를 놓치고, 그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교 잡지 ‘트라이시클(Tricycle)’이 최근 그와 실시한 인터뷰 일문일답.

Q.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12살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떻게 불교에 빠져들게 됐나.

A. 20년 전 나는 스스로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것(목표)은 실질적으로 내게 ‘인간 존재’로서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나는 삶에 많은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불교에서 내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방법을 찾았다.

불교의 네 가지 범주(거룩한 마음)인 자애 · 연민 · 타인 재산에 대한 축하 · 평정, 즉 자비희사(慈悲喜捨)는 나에게 큰 감명을 줬다. 타인을 향해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인간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나를 매우 근본적인 상태로 연결해 준다.

세계 최고 뮤지션 목표 세우고
본질적 인간에 대한 갈망 지속
‘자비희사’ 가르침 깨닫게 된 후
존재 자체 대한 ‘감사함’ 느껴

Q. 불교가 음악적인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A. 불교가 나의 작사와 작곡에 영향을 준 것은 매우 ‘무심코’ 일어났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더 잘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더 나은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불교의 길에 들었을 때 내 음악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길 원했다. 그 전에는 생각해본 적 없던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음악을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불교 실천에서 배우는 것처럼 ‘의도’는 매우 강력하다. 만약 그 의도가 선량하다면 저절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에드워드 사이몬(Edward Simon). **사진출처=트라이시클**

Q. 재즈와 클래식 장르를 라틴 아메리카 음악과 결합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떻게 할 수 있었나.

A. 나에게 있어서 음악 구성은 고전 장르에서 가장 정교한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반대로, 순간순간의 즉흥 연주는 연주자 간 대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재즈라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수년 동안 위대한 고전 작곡가의 작곡을 연주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표기법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여기서 ‘표기법 기술’이란 명확한 방법으로 (듣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Q. 음악적 우상과 불교 멘토는 누군가.

A. 베트남 불교 스승 ‘틱낫한’은 나를 계속해서 격려한다. 나는 그의 책에서 불교를 배운다. 2013년 틱낫한의 메인 센터인 프랑스의 플럼빌리지에서 열린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좋은 기회가 있었다. 그건 놀라운 경험이었다. ‘놀라운’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내가 (글로)배운 가르침을 매 순간 진정으로 구체화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음악의 경우에는 나는 트럼펫연주가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를 열광적으로 추종한다. 게다가 그를 둘러싼 몇몇의 음악가들, 색소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웨니 쇼더나 키보디스트이자 작곡가인 킥 코리 등도 좋아한다.

Q. 음악가들이 몸 밖에서의 경험이나 완전한 존재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무대 밖에서는 특정 명상의 효과와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이런 것들 경험한 적 있나.

A. 그렇다. 미국의 재즈 플루리스트 허비만과 함께한 콘서트가 생각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에서 열린 재즈 페스티벌이었다. 나는 20대 초반이었다. 그때의 느낌을 생생히 기억한다. 연주하는 동안 전체적으로 나 스스로 자아가 사라진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그와 함께한 순간 음악과 온전히 연결된 것처럼 느꼈다. 내가 거기에 없는 것과 같았다. 근데 나는 완전히 거기 있었다. 그 경험은 매우 즐거웠다.

Q. 그 경험을 되풀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

A. 그렇다. 하지만 모든 일은 힘들이지 않은(자연스러운) 감각과 함께 정확히 일어났다. 그 다음날 밤이나 다음 콘서트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싶은 자연적인 욕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면 결국 그것을 잃는다.

Q. 그건 마치 한 순간 경험에 대한 애착의 한 형태처럼 들린다.

A. 맞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든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도리어)배우게 된다. 그러나 초반에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나는 그 후로 여러 밤을 그날 밤과 비교해 봤다. 나는 “오 세상에, 오늘 밤 내 연주가 싫어”라고 느끼거나, 또는 음악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비교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다. 특히 아티스트들의 초창기에는 더욱 그렇다. 나에게 나쁜 느낌을 남겼다.

그 무대, 한 번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날 밤을 재현하는 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배웠다. 그날 밤의 나는 그날 사라졌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다.

“유서 깊은 낙서 보러 절에 오세요”

日 고찰, 오래된 낙서 공개해 관광객 입소문

17세기부터 근대까지 참배자들이 남긴 낙서를 보기 위해 사찰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낙서의 내용은 불평불만부터 소원, 일러스트까지 다양하다. 이 재미난 절을 8월 10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사가현 나가하마시(長浜市)에 소재한 일련종 사찰 묘류지(妙立寺)는 400여 년 전에 세워진 사찰이다. 이곳은 당시 지역 영주가문의 기원소(祈願所)로 지정되어 영주가 직접 영지의 안녕을 위해 참배를 오던 절이다. 이로 인해 절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계층의 참배자들이 몰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묘류지는 이와 함께 숨겨진 보물을 가지고 있다. 바로 중세부터 근대까지 약 300년의 연대차를 가진 낙서들이다. 이 낙서들은 중세에 순례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방 안 가로 2.8m, 세로 2m 가량의 내벽과 기둥에 쓰여 있다. 낙서는 천장 바로 아래까지 빼곡하게 적혀있다. 묘류지 측은 “중세에 일련종 신자들에게는 일련종 사찰들을 순례하는 ‘천개소 참배’ 풍습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낙서들이 남게 됐다”고 전했다.


벽에 그려진 낙서들을 설명하는 주지스님.
사진출처=산케이뉴스

타 지역의 일련종 고찰에도 낙서가 종종 남아있지만 묘류지처럼 많은 양의 낙서가 완벽히 보존된 곳은 드물다.

낙서들은 일련종의 신앙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순례자에게 이불을 빌려주지 않는 인색한 절’과 같은 불평, 상투를 튼 남자나 가문의 문장과 같은 독특한 일러스트들이다. 또 남겨진 연호와 지역들을 통해 시기와 당시의 교통이동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미노부산대학 모치즈키 신쇼 교수는 “이렇게 많은 낙서들이 남은 절은 본적이 없다. 생생한 신앙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불교민속자료”라며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서들은 지금까지 비공개였으나 시의 관광협회가 몇 년 전 시범적으로 시행한 관광안내에서 호평을 받으며 꾸준한 재개 문의를 받아왔다. 이에 묘류지는 관광협회와 협의해 창고로 사용되던 방의 실내를 정리하고, 남아있는 낙서들에 대한 간략한 조사 후 공식 관광자원으로 공개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첫 공개에서 낙서들을 관람한 참배자들은 “이렇게 낙서가 남아 있는 절은 처음 봤다” “재미있는 낙서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장지문에 그려진 만화캐릭터 ‘눈길’

일본 임제종 사찰, 새 장지문 그림 제작

지난 8월 8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임제종 본산 타이토쿠지의 산내암자 신쥬안에 특별한 그림이 생겼다고 특별 보도했다. 400년 전에 그려진 장지문의 그림을 현대 작가들의 그림으로 교체한 것이다. 만화가, 애니메이터,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다양한 경력의 작가들은 각자 불교를 모티프로 한 그림을 그려냈다.

신쥬안은 1491년 창건된 고찰이다. 일본에서는 민간설화로 유명한 잇큐(一休)선사가 주석한 것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이 신쥬안의 방장(方丈)에는 400년 전 화가로 유명했던 소가 쟈소쿠, 하세가와 토하쿠 등이 그린 장지문 그림이 보존돼 있다. 이 그림들은 현재 각각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됐다.

신쥬안은 문화재로 지정된 그림들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장지문의 그림도 함께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신쥬안 측은 “이 절에 주석하신 잇큐선사는 일본의 보화(普化)선사로 불리며 기행으로 중생들을 제도했다. 그런 분이 계셨던 절인만큼 장지문의 그림도 자유분방한 그림을 걸기로 했다”며 새로운 그림의 콘셉트를 전했다.


새로 그린 장지문의 그림을 설명하는 만화가 키타미 켄이치 씨.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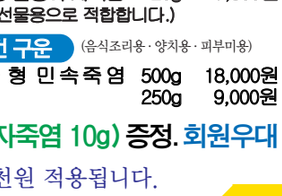
신쥬안의 주지 야마다 소슈 스님은 도쿄의 참선모임에서 인연이 된 작가들에게 의뢰했다. 일본의 유명 만화가 키타미 켄이치, 세계적인 비디오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미술 감독 카미코쿠료 이사무, 애니메이터 야마가 히로유키(山賀博之) 등을 비롯해 총 6인의 현대 작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작업에 착수, 총 45면에 달하는 장지문에 각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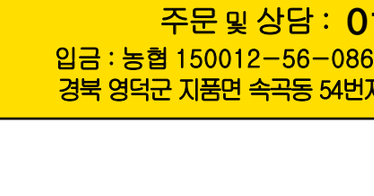
키타미 씨는 ‘낙원’을 주제로 하여 16면의 장지문에 자신의 만화캐릭터들을 사용해 연회의 모습을, 카미코쿠료 씨는 금박을 사용한 관세음보살과 신중들, 야카가 씨는 생과 사가 함께하는 세계라는 주제를 수묵으로 그려냈다.

그림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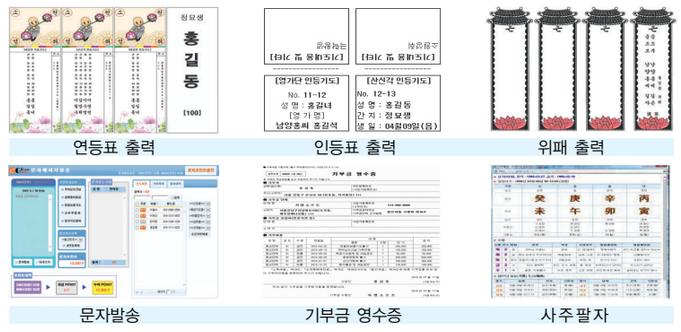
박영빈 객원기자

관세음보살님 청정성지 관세음보살님
기도삼매 친견 일천성불 받는 도량
미타산 불관사
불사 자비 보행 25년 불사중
불자인연 행자승 구합니다.
26세 계유생 27세 임신생
34세 을축생 35세 갑자생
42세 정사생 43세 병진생
50세 기유생 51세 무신생
62세 정유생 63세 병신생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 1통
가족관계증명서 …… 1통
혼인관계증명서 …… 1통
주민등록등본 …… 1통
주민등록초본 …… 1통
범죄경력조회 …… 1통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미타산 불관사 주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북길 133
전화 상담 : H·P 010-7578-6788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